Once 를 감상하며

낮에 연주하는 노래와 밤에 연주하는 노래가 다른 남자. 밤만 되면 그는 낭만을 추구하지만 낮만 되면 그는 현실에서 낭만을 죽인다. 밤의 노래를 들은 어떤 여자는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고 진공청소기앞의 먼지처럼 그는 그녀에게 빠져든다.

밤에 연주를 시작하는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카메라가 그를 멀리서 찍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카메라는 그녀가 다가가듯이 그에게 다가가고 우리는 그에게 다정한 무관심을 갖게 된다. 두 남녀가 만나는 씬은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데 카메라는 두 사람을 클로즈샷으로 찍었다가 미디엄샷으로 찍었다가 반복하지만 주로 여자를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줬다. 그와 그가 부르는 노래의 상대를 궁금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며 감독은 그녀의 감정에 더 집중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낮에는 스스로 쓴 곡을 연주하지 않던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낮에 자작곡을 연주하던 것은 그녀와 함께 있는 악기가게에서다. 이런 의미 있는 장면을 감독은 두 인물을 한 카메라에 클로즈샷으로 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역시 여자를 더 가까이 표현했다. 또 여자의 클로즈샷을 더 집중적으로 찍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Falling Slowly를 연주하며 여자는 무아지경으로 연주하는 남자를 계속해서 쳐다본다. 이런 그녀의 시선을 감독은 아주 아름답게, 또 희망차게 표현했다.

감독은 전반부에서 남자에 대해 물어보는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에 대해 묻지 않는 남자에 대해 말한다. “밀루 에쉬 호”라고 물어보는 남자에게 “밀루유 떼베” 라고 답하는 장면까지 감독은 카메라를 여자에게 가까이 한다. 여자에 대해 스토리로 풀어내는 대신 감독은 카메라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로 나는 두 남녀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표현력에 상당히 매료되었다.

이미 슬픈 사랑을 겪었던 두 남녀가 음악을 통해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카메라는 주로 어둠을 통해 표현했다. 전반부에서는 여자에게 더 집중했던 감독은 여자가 남자의 곡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는 롱테이크에서 어두운 배경에 빨간 빛 아래에 있는 여자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후반부에서는 카메라는 남자에게도 비중을 두는 듯 했다. 그에게 거리를 두는 그녀와 그런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남자. 하지만 어둠 속의 피아노에서 같이 런던으로 가자고 하는 부분, 녹음을 마치고 차나 한잔 하자는 장면에서도 멀리 하려는 여자보다는 그러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를 더 가까이 드러냈다.

감독이 카메라로 가장 집중하며 그렸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아닐까. 첫만남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보이던 관심, 사랑하지만 그 감정을 진실되게 표현할 수 없는 남자의 부끄러움, 마지막 헤어짐 장면의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서로가 아닌 사람에게 되돌아갈 때의 공허함 말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가슴 먹먹한 감정들이 이 영화를 통해 가장 절절히 느껴졌다.

이 영화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완벽하게 계획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인물들을 표현하는 카메라 앞을 서슴없이 지나가며 완벽하게 인문들에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모습들 때문인지 우리가 카메라 너머에서 몰래 주인공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면에서 다정한 무관심이 더욱 자세히 표현되었고 음악으로 시작하고 점점 가까이 시작했던 작품이 음악과 함께 점점 멀어지며 끝난다.